관광학석사 학위논문

외식업 종사자의 창업 인지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조리 경력차이를 중심으로–

An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staurant Workers
- Focusing on Cooking Career Difference -

경주대학교 대학원

관광외식산업학과

이 영 기

2017년 6월

외식업 종사자의 창업 인지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리 경력차이를 중심으로-

An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staurant Workers

- Focusing on Cooking Career Difference -

지도교수 김 보 성

이 논문을 관광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경주대학교 대학원

관광외식산업학과

이 영 기

이영기의 관광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_____(인)

위　원_____(인)

위　원_____(인)

2017년 8월

경주대학교 대학원

목 차

국문요약 ..... Ⅵ

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 2절 논문의 구성 4
1. 연구의 구성 4
2. 연구의 범위 6
제 2장 선행 연구 7
제 1절 창업 7
1. 창업에 대한 논의 7
2. 창업과 고용에 대한 논의 11
3. 창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 13
4. 외식관련 창업 16
제 2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22
1.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22
2. 힌국 중소기업 지원정책 25
3. 외식창업 관련 지원제도 28
제3절 직무경력과 창업교육 30
1. 직무경력 30
2. 창업교육 30
제 3장 연구방법 31
제 1절 조사설계 34
1. 조사목적 34
2. 과제의 설정 34
제 2절 조작적 정의 36

제 3절 조사설계 38
1. 표본 추출 및 방법 38
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38
3. 자료수집 39
5. 자료분석방법 40
제 4장 실증분석과 연구결과 41
제 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과 기술통계 4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41
2. 기술통계 44
제 2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 47
1. 신뢰성분석 47
2. 요인분석 48
제 3 절 연구과제의 분석 53
1. 연구과제 1의 실증분석 53
2. 연구과제 2의 실증분석 54
3. 연구과제 3의 실증분석 55
제 5장. 결론 59
제 1절. 연구 결과 59
제 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61

참고문헌 62
ABSTRACT 67
설문지 70

표 목차

<표 2-1> 해외 학자들의 창업에 대한 연구 8

<표 2-2> 국내 학자들의 창업에 대한 연구 10

<표 2-3> 창업과 고용에 대한 연구 논의 12

<표 2-4> 창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 연구 14

<표 2-5> 외식관련 창업성공요인(외식업의 자체를 중시) 18

<표 2-6> 외식관련 창업성공요인(외식업 경영자를 중심으로 한연구) 21

<표 2-7>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연구내용 24

<표 2-8>현 정부의 5대 분야 전략기술 27

<표 3-1> 설문지 구성 39

<표 4-1> 일반적 특성 42

<표 4-2> 기술통계량 45

<표 4-3> 창업일반인식 신뢰도 통계량 47

<표 4-4> 창업인적네트워크 신뢰도 통계량 48

<표 4-5> 외식창업 교육.컨설팅 신뢰도 통계량 48

<표 4-6> 외식창업필요교육 신뢰도 통계량 48

<표 4-7> 창업일반인식회전된 성분행렬 49

<표 4-8> 창업인적네트워크 성분행렬 50

<표 4-9> 창업교육 성분행렬 50

<표 4-10> 창업필요교육회전된 성분행렬 51

<표 4-11> 경력에 따른 창업여건에 대한 평균차이 53

<표 4-12> 경력에 따른 창업지원에 대한 평균차이 ····· 54
<표 4-13> 경력에 따른 창업인적네트워크에 대한 평균차이 ····· 54
<표 4-14> 경력에 따른 창업인적네트워크에 대한 평균차이 ····· 55
<표 4-15> 경력에 따른 업장운영교육에 대한 평균차이 ····· 56
<표 4-16> 경력에 따른 업장경영교육에 대한 평균차이 ····· 56
<표 4-17> 경력에 따른 업장고객교육에 대한 평균차이 ····· 57
<표 4-18> 경력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평균차이 ····· 57
<표 4-19> 경력에 따른 배상보험에 대한 평균차 ····· 58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구성체계 5
<그림 2> 향토 음식자원화 사업흐름도 33

국문 요약

한국은 임금의 연공서열제로 인하여 장년층이 조기 은퇴하고 있으며, 사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체계는 청장년층 또한 조기 퇴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정부에서는 퇴직 후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창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제도를 만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하거나 은퇴 예정 조리종사자의 정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제도 중 정부보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첫째는 조리 종사원이 외식업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인지여부를 파악한다. 둘째는 조리 종사원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 및 교육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 경려에 따른 인지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통이상의 값이 나타났다. 맛집사업인지(3.1206), 창업정부지원인지(3.2763) 등으로 정부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에 대하여서는 조리종사원들의 인지가 낮았으며, 불만고객대처(4.2101), 기본매너(4.2374), 고객소통(4.2568), 온라인홍보(4.2607)등으로 교육요인에 대한 욕구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1.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에 대하여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것은 증명되었다. 연구과제2.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인적네트워크에 대하여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연구과제도 증명되었으며 연구과제 3인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교육와 필요창업교육분야에 대하여 차이가 있다는 연구 과제는 일부분만 규명되었다.

본 연구는 외식업 종사자인 조리사의 창업 의사, 창업 여건, 창업 교육에 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데 첫 의의가 있다. 또한 조리사 경력에 따라 창업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으며 창업의 인적 관계도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명한 것이다. 그리고 창업교육 필요성과 필요교육 분야가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명한 것이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첫째 사항은 조리 종사원 창업 공육에서 안전 교육과 업무관련보험 업무에 대한 욕구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외식창업 교육이 음식 개발, 서비스등에 맞추어져 있으나 조리사들의 필요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리경력에 따라서 창업에 대한 인식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업장 운영과 업장경영에 대한 교육 내용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자들이 많이 창업을 하고 퇴출하는 외식업 시장에서 조리 전문가의 단독 창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조사대상자가 일반 조리사를 중심으로 하여 창업 욕구가 없는 자까지 조사하여 교육 필요성이나 필요 교육 분야가 실제 창업하려는 조리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조사대상자를 수도권으로 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음식 종류에 따라 창업이나 필요 교육이 다른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국에서 대다수의 직장인은 40-50대에 기존의 직장에서 퇴직을 한다[1]. 은퇴되는 나이는 인생의 생애주기에서는 경제활동기이다. 자녀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기 직장에서 퇴직하여도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야한다. 실제 고용노동부(2016)에 따르면 한국의 실제은퇴 나이는 남 73세, 여 71세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퇴직 시기을 연장시킬 수 없다. 기업입장에서는 늙은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은 30대중.후반 노동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습득도 떨어진다. 하지만 대다수 한국기업의 임금체계는 직무 성과제가 아닌 늙은이를 위한 연공서열제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기업체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등이 도입되거나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임금 체계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배자와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독재정치이념인 유교가 사회 전반에 영향[2]을 주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중년층이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예로 젊은 직장 상사가 경력이 있는 늙은 종사원에게 정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기 어려운 사회 풍토에서 중년 퇴직자의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기존의 경력과 직무를 살리기는 더욱 힘들다.

그러므로 많은 중년 퇴직자들은 떠밀듯이 생계형 창업을 한다. 2015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2월 537만명에서 지난 9월

1) 사기업의 경우 법적 정년과 달리 노동유연성이라는 명분으로 조기 은퇴를 하고 있음.
2) 유교는 춘추정국시대에 왕권 강화와 반란을 줄이려는 왕과 이에 결탁한 학자인 공자에 의하여 사상이 개방되어 그의 제자들이 완성한 지배정치이념임 (지상, 2016)

568만명으로 9개월 새 31만명이나 늘었다.

중년층의 생계형창업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임진금융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도 감소하는 등 자영업 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창업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의 대학 졸업자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2008년 전체의 48%에서 지난해 58%로 6년새 10%포인트 뛰었다. 창업에 나선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는 작년 189만명으로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151만명)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퇴직자의 생계형 창업은 젊은이 창업과 달리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선순환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0대 중산층이 직장에서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창업에 투자하여도 성공은 커녕 계속 중산층으로 남는 것도 쉽지 않은 탓이다. 작년 자영업자는 가구당 9379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소상공인이 창업 1년 후 문을 닫는 비율이 40%이고 금액으로는 31조원이나 된다. 자영업 생산성이 낮은 것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실질 GDP는 4340만원으로 제조업(929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조선일보, 2016)

이러한 이유로 한국 정부에서는 퇴직 후 창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제도를 만들고 있다. 어떤 창업 지원 제도는 실용적이고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어떤 지원 제도는 그 취지가 무색하게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외식업분야도 여러 창업 지원제도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원제도는 일반인, 평생 다른 직종에 있던 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외식업에 종사하던 특히 조리업에 종사하던 자들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중앙정부 민간 보조사업 1760개, 연간 30조원의 정부 보조 사업에서, 전체 산업종사원 964만명 중 26만명이 종사하는 외식업 종사원의 창업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외식업 종사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이유는 몇 가지로 추론 할

수 있다. 첫째, 외식업 자체가 소규모라 각 업체별로 종사하는 사람이 소수이고 결집이 안되고 있어 외식업 종사자의 실업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다는 점이다. 둘째, 외식 관련 단체가 이익단체로써 역할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외식관련 단체는 정부의 지시통로나 정부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단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를 향한 이익단체의 모습을 나타나기 어렵다. 셋째, 외식관련 연구의 문제이다. 현재까지 연구는 경영이나 조리법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정책입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 연구가 극히 적어 타 업종에 비하여 지원 적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외식창업시 조리 교육이나 외부 조리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식초보자에게는 매우 필요한 조치이지만 조리 경력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조리 관련 종사자의 창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인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였다.

다른 정부 지원제도에서는 해당 분야 전공자에게는 교육이나 일정의 과정을 면제[3] 시켜 주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하거나 은퇴 예정 조리종사자의 정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제도 중 정부보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연구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조리 종사원이 외식업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인지여부를 파악한다.

둘째 : 조리 종사원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 및 교육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셋째 : 조리 경력에 따른 창업 전반의 인지차이를 규명한다.

3) 정부의 귀농지원을 위하여서는 100시간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관련 전공자나 종사자에게는 교육 면제를 하고 있다.

제 2절 논문의 구성

1.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조리 관련 종사자 중 퇴직예정자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높은 정부 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계량적 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목적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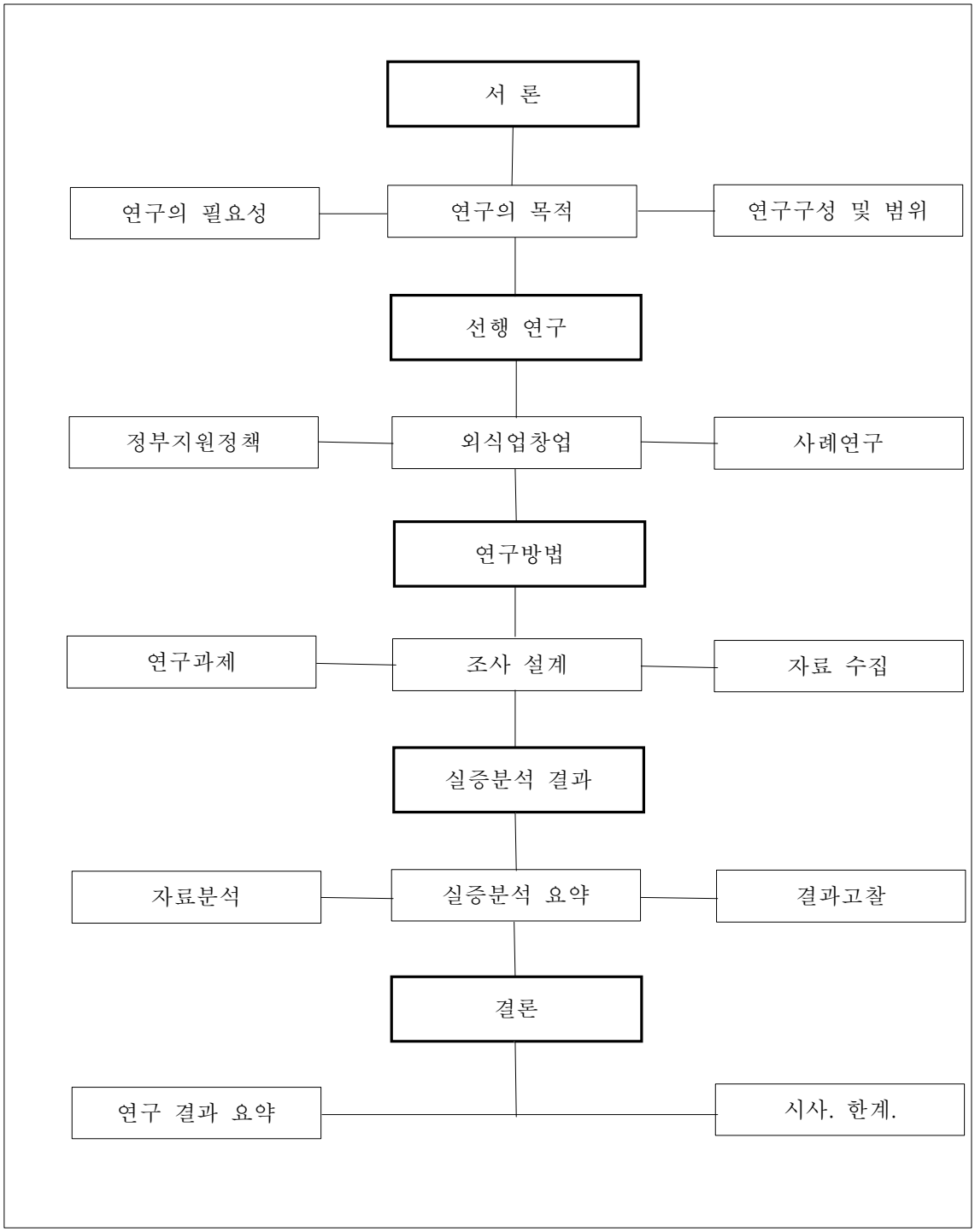
제 1장은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를 설명한다.

제 2장은 정부지원책의 이론, 구체적인 외식 창업 지원 사례와 타분야 지원사례를 탐구한다.

제 3장은 연구 과제를 설정한다.

제 4장은 연구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제 5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구성 및 범위
선행 연구
정부지원정책
외식업창업
사례연구
연구방법
연구과제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실증분석 결과
자료분석
실증분석 요약
결과고찰
결론
연구 결과 요약
시사. 한계.

<그림 1> 연구의 구성체계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지역을 한정시킨 이유는 정부의 지원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은 동일하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다양하므로 이를 모두 적용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는 조리계통에서 근무하거나 조리관련 퇴직자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가 조리 관련 창업시 창업예정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정부 지원(민간자본보조사업) 개선점을 도출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바, 연구의 실효성을 창업이 예상되는 퇴직자나 예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제 2장 선행 연구

제 1절 창업

1 창업 개념

창업(創業)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한자어로 창업(創業)을 나라나 왕 조 따위를 처음으로 세움이란 뜻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창업은 국가를 건립하는 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적 의미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라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다. 법률적 측면에서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첫째,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둘째, 개인 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 의 사업가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셋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즉 창업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초기 사업을 운영하는 단계이다.

해외 학자들은 창업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Brockhaus, R.H (1980)는 창업이란 수반되는 재정적·심리적·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가치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여 금전적인 보상과 개인적인 만족 그리고 독립감을 누리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McMullan(1985)은 창업을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사업의 창조 개념으로, 실제로는 창업 단계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갖게 되는 단계까지를 창업이라 하여, 단순히 조직이나 회사를 만드는 과정 뿐만 아니라 창업 전 과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Vesper(1983)는 보다 경제적 의미로 창업을 보아, 창업을 자원, 노동, 재료

그리고 자산을 결합시켜 이전 보다 가치 있는 조직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며, 변화와 혁신, 새로운 질서를 수반한다고 정의하였다.

Timmons(1994)는 창업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부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으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그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기호를 추구하며 창업은 비전과 그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며 계산된 의지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고, Dollinger(2002)는 창업이란 위험과 불확실성 상황에서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적 경제적 조직체의 탄생이라고 정의하여, 기존 업체의 인수나 양도 받는 행위는 창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창업에서 창업자를 중시한 Schumpeter(1934)는 창업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설명하며, 기업가는 창업과정을 이용하여 자원의 새로운 결합, 상업방법으로 현상 유지를 탈피하는 혁신가라 하여 창업과정에서 창업가를 중시 하였다.

<표2-1>해외 학자들의 창업에 대한 연구

연구자	내용
Schumpeter (1934)	창업을 하나의 과정임. 기업가는 창업과정을 이용하여 자원의 새로운 결합, 상업방법으로 현상 유지를 탈피하는 혁신가라 함.
McMullan(1985)	창업을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사업의 창조하는 것 실제로는 창업 단계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갖게 하는 과정까지 포함.
Brockhaus, R.H (1980)	창업이란 수반되는 재정적·심리적·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가치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여 금전적인 보상과 개인적인 만족 그리고 독립감을 누리려는 과정.
Vesper(1983)	창업이란 자원, 노동, 재료 그리고 자산을 결합시켜 이전보다 가치 있는 조직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변화와 혁신, 새로운 질서를 수반한다고 정의.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함.
Timmons(1994)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부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그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기호를 추구. 창업은 비전을 추구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며 계산된 의지를 필요.
Dollinger(2002)	위험과 불확실성 상황하에서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적 경제적 조직체의 탄생이라고 정의. 기존 업체의 인수나 새로운 사주로 부터의 양도와 같은 행위는 창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자 작성

국내 창업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김재식(1997)은 자본, 사업 아이디어, 종업원, 시설 등을 구비하여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하였고, 김유식(1997)은 창업이란 위험과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사업기회를 발견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새롭게 사업체를 만드는 행위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창업은 사업을 창조하는 것으로 경영목적과 계획 하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체 또는 시스템인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박정기(2001)는 창업이란 사람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기업가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사업기회에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신모(2002)는 간략하게 창업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책임하에 돈과 사람을 동원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 하였다.

위의 열거한 학자들의 정의가 사업 시작에 맞추어 정의를 내렸다면, 최근 학자들의 견해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나영선(2006)은 창업이란 새로운 기업을 창립하는 것으로 자본, 사람,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투입하여 경영시스템을 통한 변환과정을 거쳐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산출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병욱(2006) 창업이라 함은 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사업이나 업종을 선택하여 사업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제적·생산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시화(2008)는 창업이란 수반되는 재정적·심리적·사

회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가치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금전적인 보상, 개인적인 만족 그리고 독립감을 누리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창업은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자본과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창업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책임하에 자본과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창업이라 하였다.

김용집(2014)은 창업이란 제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조직을 설립하는 행위라 하였다. 또한 창업이란 위험과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새롭게 사업체를 만드는 행위이며, 사업을 창조하는 것으로 경영목적과 계획 하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체 또는 시스템인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주체로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법률적 측면에서 최순영(2007)은 법률적 측면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서근하·윤성욱(2002) 또한, 법적 조항을 기초하여 제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 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조직을 설립하는 행위라 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창업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시스템을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고 수행하는 초기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표2-2> 국내학자들의 창업에 대한 연구

연구자	내용
이시화(2008)	창업이란 수반되는 재정적·심리적·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가치 있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금전적인 보상과 개인적인 만족 그리고 독립감을 누리려는 과정.
김용집(2014)	제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조직을 설

	립하는 행위.
나영선(2006)	새로운 기업을 창립하는 것으로 자본, 사람,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투입하여 경영시스템을 통한 변환과정을 거쳐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산출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
박정기(2001)	사람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기업가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사업기회에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
이신모 (2002)	실무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책임 하에 돈과 사람을 동원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병욱(2006)	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사업이나 업종을 선택하여 사업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제적·생산적 활동
김재식 (1997)	자본, 사업 아이디어, 종업원, 시설 등을 구비하여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최순영(2007)	법률적 측면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서근하·윤성욱 (2002)	법적 조항을 기초하여 제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 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조직을 설립하는 행위.
김유식(1997)	위험과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사업기회를 발견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새롭게 사업체를 만드는 행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자 작성

2. 창업과 고용에 대한 논의

본 연구가 조리사의 퇴직 후 창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이므로 창업과 고용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다. 창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성공이나 실패를 주며 사회적으로는 납세[4], 경제성장, 고용 등 많은 선 기

4) 본문의 납세는 직접세인 법인세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능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주외(2011)은 창업과 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창업활동이 고용 및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유경준(2004)에 의하면 정부의 일자리창출 지원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주체이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자리창출은 성장이 고용이 선순환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고용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득이 빈곤을 없애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된다는 경로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즉 현재의 기업 일자리 창출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태기(2004)은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중소기업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벤처기업 열풍 조성은 일자리창출에 보다는 부수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자금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여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불평등한 관행 문제를 제기하였다.

<표2-3> 창업과 고용에 대한 연구논의

연구자	내용
유경준(2004)	정부의 일자리창출 지원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주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 일자리창출은 성장이 고용이 선순환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고용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득이 빈곤을 없애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된다는 경로가 미흡.
김태기(2004)	정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중소기업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벤처기업 열풍 조성은 일자리창출에 보다는 부수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 평가.

	중소기업의 문제는 자금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함.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불평등한 관행 문제를 제기
이동주 외2(2011),	창업과 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창업활동이 고용 및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자 작성

3. 창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

창업은 일반적인 경우 대규모 자본으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인적 구조 또한 적은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 그러므로 정영순(2008)은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은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고 생산관리 능력이 미흡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 지원방법으로 박봉삼(2007)은 소상공인의 경영성과를 위하여 창업 단계별 지원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창업 준비단계에서 창업자특성, 사업 아이템 선정, 점포특성의 3가지 요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충섭외(2009)은 사업 지원 부분으로 나누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재무성과, 고객성과, 내부과정성과, 학습 성과 등으로 구분되는 균형성과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상순(2012)은 정부지원효과는 소상공인 창업과정과 사업성과면에서 자금지원과 경영지원이 유의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인프라 확충 및 정책적 지원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2-4> 창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연구

연구자	내용
정영순(2008)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은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고 생산관리 능력이 미흡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박봉삼(2007)	소상공인의 경영성과를 위하여 창업단계별 지원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창업 준비단계에서 창업자특성, 사업 아이템 선정, 점포특성의 3가지 요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할 필요.
이충섭(2009)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재무성과, 고객성과, 내부과정성과, 학습성과로 구분되는 균형성과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함.
김상순(2012)	정부지원효과는 소상공인 창업과정과 사업성과면에서 자금지원과 경영지원이 유의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인프라 확충 및 정책적 지원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자 작성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위하여 기성세대와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 문화관광체육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의 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도 등의 지방 정부에서 다양한 분야에 시행되고 있다.[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제의 청년창업 지원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창업교육, 두번째는 예비 창업자 발굴을 위한 창업 경진 대회, 세번째는 창업 사업화 지원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창업교육으로는 크게 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 창업대학원 지원, 기술창업아카데미, 창업선도대학(이상 중소기업청), 창조 캠퍼스(고용노동부), 하이서울창업스쿨(서울특별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창업경진대회는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5) 중소기업청(2011)자료 참조

(중소기업청), 쇼셜 벤처 경영 대회(고용노동부)가 추진되고 있으며, 창업 사업화지원을 위해서는 예비 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보육센터, 선도 벤처기업 기술창업 지원사업, 유망 특허활용 기술 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중소기업청), 청년 창직·창업인턴제, 청년창업1000프로젝트(서울특별시), 청년CEO500 프로젝트(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학 창업 300프로젝트(대전광역시)등이 추진되고 있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유형별 운영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은 2004년부터 서울(호서대학교)·경기(중앙대학교)· 충청(한밭대학교)·전라(예원예술대학교)·경상(진주산업대학교) 등 5개 시·도에 창업 대학원 설치하여 창업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 대학원은 석사 학위 과정으로 국내 최초로 창업 전문가를 직접 양성하는 과정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 전략 산업의 신규 창업 지원 및 지역 거점 창업 후견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 대학원과 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고 5개 대학원간 우수 교육 프로그램 공유 등의 협업을 통하여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대학 내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미래 예비 창업자인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리를 발굴하여 예산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화 가능한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대학생 창업 동아리의 신청을 받아 선정 심사 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하며, 선정된 창업 동아리에게 개발 비용 및 개발 기간들을 고려하여 아이템 당 차등 지원한다. 또 창업 가능성과 기술 수준을 조사하여 창업 보육 센터와 연계시키고, 자금, 세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등 대학생들의 창업 역량을 높이고 있다.

4. 외식관련 창업

외식업은 일반 제조업과 품질의 비균일성, 비저장성, 서비스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식업 창업이나 운영은 타 사업과 차이가 난다. 먼저 외식업의 고객 선택을 중시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레스토랑 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1993)는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팬시레스토랑의 외식소비자들의 태도와 행동을 조사하였다. 음식, 서비스, 분위기의 3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속성을 조사한 결과, 음식 맛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에서는 직원의 미소, 분위기에서는 청결에 대한 기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는 편리성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의 가격이 높을수록 맛, 신선도, 직원의 친절성, 실내장식 등의 속성에 더욱 높은 기대감을 보여 외식업 소비자는 지불 가치 대비하여 상품인 음식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hroeder(1985)는 외식업체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외식업체 선택에서 신문 또는 잡지의 비평가들이 기고하는 비평이 독자의 레스토랑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비평가의 레스토랑 평가 기준으로 음식의 질, 서비스의 질, 분위기, 가격, 메뉴의 다양성, 위 생, 건물의 외관, 음식의 양 등으로 9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Muller & Inman(1994)는 체인레스토랑 유형별로 고객의 선택 속성들으로 가격, 메뉴, 신속함, 일관성, 편리성, 안락함, 가격과 양의 가치, 스타일, 분위기, 위치 등이라 하였다.

한국에서도 김홍범·허창(1997)은 레스토랑 선택요인으로 직원과 레스토랑의 위생 및 청결성, 메뉴선택의 다양성 및 볼거리 제공, 의상·이미지 및 분위기, 음식의 맛과 질, 영양, 메뉴의 다양성, 가격의 가치성, 어린이를 위한 시설 및 분위기, 특정 고객을 위한 메뉴 및 흡연석 구분, 접근 편리성 및 주차시설, 야외시설과 안락하고 신속한 서비스의 수준, 가격·양 및 수용능력,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외식업 선택 속성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어린이 편의 시설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식업의 본질적 상품인 음식이외에 고객에게 미치는 인테리어나 매장환경

인 물리적 환경을 중시한 연구를 보면, 조광연(2009)은 외식업체의 물리적 환경을 접근용이성, 미적 매력성, 청결성, 편의성, 쾌적성 등 5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타 산업분야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물리적환경이 외식시설의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진우(2010) 연구 또한, 외식업체 물리적환경요인을 청결성, 편의성, 심미성, 공간성 등 4개 요소로 구분하여 연구결과, 이들이 고객만족, 구전 및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물리적 환경이 선택 속성 중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났다. 권기준(2010)은 소규모 음식점의 물리적환경의 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주변요소는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후각 및 촉각적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디자인 요소는 내부요소와 외부요소로, 사회적 요소는 인적요소와 물적 요소로 구분하였는데 분석결과, 주변요소에서는 시각적요소의 중요하며, 디자인 요소는 내부요소, 사회적 요소는 인적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속성이나 물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외식업의 성공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ambert(1993)은 훌륭한 사업계획, 경영자의 경력, 개점초기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식당의 위치, 식재료에 대한 낮은 비용, 그리고 낮은 임대료나 식재료 구입비, 메뉴에 대한 개선, 유능한 조리사의 고용, 고급화된 음식을 시도하는 것도 공통적인 성공요인이라고 하였다. 정봉원(2000)은 성공요인이란 좋은 입지조건, 매력적인 실내장식, 편리한 주차장, 효율적인 설계, 즐거운 분위기 ,탁월한 경영기법, 독특한 식사와 음료, 합리적인 적정가격, 양질의 서비스, 식당외곽의 수려함, 청결함, 식당의 이미지라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김예주(2010)는 경영자를 중시하여 중소규모 외식업체 경영자 특성을 경영관리 능력, 위험감수능력, 의사 소통능력으로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었고다. 성과요인을 음식의 맛과 질, 접근의 편의성, 서비스품질, 물리적 환경, 위생 및 청결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경영자 특성과 성과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중소규모 외식업체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을 위해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통해 외식업체를 운영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성과요인의 요인 중 접근의 편의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음식의 맛과 질, 서비스품질, 물리적 환경, 위생 및 청결 등의 요인들은 외식업체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에 불과하여 특별한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접근의 편의성은 소비자가 레스토랑을 선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고객에게 편리함과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외식업체를 성공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 한 요소라고 하였다.

강대훈(2006)은 고객을 인구 통계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외식사업이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외식업에 있어서 남 성의 경우에는 음식가격과, 홍보전략, 메뉴상품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여성의 경우는 방문고객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50대 이상의 고객들은 음식가격이나, 홍보전략, 매장입지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나, 식자재의 질과 같은 메뉴상품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표2-5> 외식관련 창업성공 요인(외식업 중심)

연구자	내용
미국 레스토랑 협회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1993)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팬시레스토랑의 외식소비자들의 태도와 행동을 조사. 음식, 서비스, 분위기의 3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속성을 조사한 결과, 음식 맛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음, 서비스에서는 직원의 미소, 분위기에서는 청결에 대한 기대 정도가 높음.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는 편리성으로 나타남, 음식의 가격이 높을수록 맛, 신선도, 직원의 친절성, 실내장식 등의 속성에 더욱 높은 기대감.
Shroeder (1985)	훌륭한 사업계획, 경영자의 경력, 개점초기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식당의 위치, 식재료에 대한 낮은 비용, 낮은 임대료나 식재료 구입비, 메뉴에 대한 개선, 유능한 조리사의 고용, 고급화된 음식을 시도하는 것도 공통적인 성공요인.
Muller & Inman(1994)	체인레스토랑 유형별로 고객의 의사결정 속성들로 가격, 메뉴, 신속함, 일관성, 편리성, 안락함, 가격과 양의 가치, 스타일, 분위기, 위치 등을 제시.
김 홍 범 · 허 창	레스토랑 선택요인으로 직원과 레스토랑의 위생 및 청결성, 메

(1997)	뉴선 택의 다양성 및 볼거리 제공, 의상·이미지 및 분위기, 음식의 맛과 질, 영양, 메뉴의 다양성, 가격의 가치성, 어린이를 위한 시설 및 분위기, 특정 고객을 위한 메뉴 및 흡연석 구분, 접근 편리성 및 주차시설, 야외시설과 안락하고 신속한 서비스의 수준, 가격·양 및 수용능력,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 등을 제시
정봉원(2000)	좋은 입지조건, 매력적인 실내장식, 편리한 주차장, 효율적인 설계, 즐거운 분위기 ,탁월한 경영기법, 독특한 식사와 음료, 합리적인 적정가격, 양질의 서비스, 식당외곽의 수려함, 청결함, 식당의 이미지라고 제시.
Lambert (1993)	훌륭한 사업계획, 경영자의 경력, 개점초기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식당의 위치, 식재료에 대한 낮은 비용, 그리고 낮은 임대료나 식재료 구입비, 메뉴에 대한 개선, 유능한 조리사의 고용, 고급화된 음식을 시도하는 것도 공통적인 성공요인.
김예주(2010)	성과요인의 요인 중 접근의 편의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음식의 맛과 질, 서비스품질, 물리적 환경, 위생 및 청결 등의 요인들은 외식업체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에 불과하여 특별한 경쟁력이 되지 못함. 접근의 편의성은 소비자가 레스토랑을 선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것 , 고객에게 편리함과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외식업체를 성공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강대훈(2006)	첫째, 외식업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에는 음식가격과, 홍보전략, 메뉴상품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여성의 경우는 방문고객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50대 이상의 고객들은 음식가격이나, 홍보전략, 매장 입지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나, 식자재의 질과 같은 메뉴상품에 많은 영향을 받음
권기준(2010)	소규모 음식점의 물리적환경의 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특성을 기준, 주변요소는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후각 및 촉각적 요소로 구성, 디자인 요소는 내부요소와 외부요소로, 사회적 요소는 인적요소와 물적 요소로 구분 분석결과, 주변요소에서는 시각적요소의 중요하며, 디자인 요소는 내부요소, 사회적 요소는 인적요소가 중요.

조광연(2009)	외식업체의 물리적 환경을 접근용이성, 미적 매력성, 청결성, 편의성, 쾌적성 등 5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타 산업분야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물리적환경이 외식시설의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자 작성

창업자인 경영자를 중심으로 외식업과 같은 소규모 창업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정제(2004)는 창업성공요인인 심리적 특성, 사업아이템 선정, 경영 관리요인과 점포이미지는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윤재(2006)는 창업보육기업의 기업가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에서 기업가의 심리 특성 중 성취 욕구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험감수성향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시 사업적 위험을 줄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선성(2007)은 창업자 개인적 특성요인에는 배경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배경적 특성에는 성별, 가정환경, 연령, 학력, 경험 등이 있으며, 심리적 특성에는 성취 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 등이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안태항(2010)은 소상공인의 배경적 특성은 성별, 연령, 창업경험, 업종경험, 창업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심리적 특성은 창업 지향성, 모호성 인내, 창업자 마인드로 구분하였다. 창업성과는 창업만족과 경영성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배경적 특성 가운데 성별, 창업경험, 창업유형은 경영성과와 창업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철(2012) 또한, 창업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창업자 심리적 특성을 희망, 완벽주의, 내재적 통제위치, 모호성 인내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결과,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창 업가십에 대하여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가의 특성이 완벽주의일수록, 창업가의 통제위치가 내재적일수록, 창업가의 모호성 인내가 클수록 창업가정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업가의 희망정도는 창업가십에 대하여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가의 특성은 시장지향성과 창업성과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창업가의 특성이 완벽주의일수록, 창업가의 통제위치가 내재적일수록, 그리고 창업가의 모호성 인내가 클수록 시장지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6> 소규모 창업 성공요인 (창업자중심)

연구자	내용
신종철(2012)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을 희망, 완벽주의, 내재적 통제위치, 모호성 인내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결과,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창업가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침. 창업가의 특성이 완벽주의일수록, 창업가의 통제위치가 내재적일수록, 창업가의 모호성 인내가 클수록 창업가정신이 커짐
안태항(2010)	소상공인의 배경적 특성은 성별, 연령, 창업경험, 업종경험, 창업유형으로 구분, 심리적 특성은 창업 지향성, 모호성 인내, 창업자 마인드로 구분 ,창업성과는 창업만족과 경영성과로 구분. 배경적 특성 가운데 성별, 창업경험, 창업유형은 경영성과와 창업만족에 긍정적 영향.
이선성(2007)	창업자 개인적 특성요인에는 배경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배경적 특성에는 성별, 가정환경, 연령, 학력, 경험, 심리적 특성에는 성취 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 등이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이윤재(2006)	기업가의 심리 특성 중 성취 욕구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위험감수성향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조정제(2004)	창업성공요인인 심리적 특성, 사업아이템 선정, 경영 관리요인과 점포이미지는 사업성과에 영향을 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자 작성

제2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Wallsten(2000)은 SBIR[6] 프로그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출연금 지원이 기업의 R&D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보여줘, 정부지원의 기업R&D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ECD에 가입한 17개국의 20년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해 정부의 재정지원 모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보조금과 조세지원은 민간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Guellec and van Pottel-sberghe(2000) 또한 직접적인 보조금지원과 조세지원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상호 대체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Lach(2002)는 R&D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1990~1995년 사이 이스라엘의 R&D지원 사업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보조금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여, 중소기업은 정부 보조금과 기업 R&D 투자 간에 보완관계에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는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조세지원을 하여 민간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수록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얻었다.

성태경(2003)은 기술개발 및 혁신은 자원 기반의 관점에서 기업의 자원과 능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보유자원과 능력을 유형적, 무형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유형적 자원은 금융자립정도와 부패비율 및 기업 규모 등으로, 무형적 자원의 대리변수로는 기술개발 인력, 소유구조, 자본집약도 등으로 구분하여 기업규모가 기술개발 및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효

---

6) 중소기업 혁신 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 프로그램임. . 미국종자펀드라는 별칭 같이 소규모 비즈니스 관리에 의해 조정, 특정 중소기업을 연구 및 개발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금임. 기금은 계약 또는 교부금 형태로 지급함. 받는 사람 프로젝트는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미국 정부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산은 약 $2,500,000,000정도 임.
지원 대상은 500인 이하이며 종업원이 10명 - 25명인 기업이 3분의 1정도 임. 소수민족 또는 여성 소유 기업이 우대를 받음. (www.sbir.gov)

과를 보여주며, 기술개발 인적자원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금융자립도와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등은 기술혁신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병기(2004) 1995년~1998년의 제조업의 불균형패널 3,561개 자료를 사용하고, 정부의 R&D 투자액과 매출액, 현금흐름 및 시장집중도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와 매출액 및 시장집중도가 증가할 때,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평균 이상인 기업에서 평균적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중요하다는 연구를 하였다.

원종학외(2005)은 정부의 조세지원을 진행한 연구로 2002~2003년의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 규모별로 R&D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매출액은 R&D 투자에 양의 효과를 가져 오고, 조세지원도 R&D투자에 양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송종국외(2009)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는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R&D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나며, 정부의 R&D 보조금이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위세안(2011)과 이선영(2011)은 정부의 지원 보다는 대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여 대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지원금의 후생복지적 역할 낙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Dupont and Martin(2003)의 연구에서 낙후지역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지역간 소득불평등 및 고용,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낙후 지역의 보조금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kubo(2011) 또한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이질적일 때 주변부지역에 재입지하는 기업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주변부 지역의 후생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즉 정부의 소규모 지원은 단순히 창업자나 사업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소외 지역이나 소외 계층

에게 복지지원이 된다는 것이다.

. <표2-7> 중소기업 지원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Wallsten (2000)	SBIR 프로그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출연금 지원이 기업의 R&D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보여줘, 정부지원의 기업 R&D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줌.
Lach(2002)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수록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
Guellec and vanPottelsberghe (2000)	직접적인 보조금지원과 조세지원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상호 대체적인 효과 있음.
성태경(2003)	기술개발 및 혁신은 자원 기반의 관점에서 기업의 자원과 능력의 역할이 중요, 보유자원과 능력을 유형적, 무형적 자원으로 구분, 유형적 자원은 금융자립정도와 부패비율 및 기업 규모 등으로, 무형적 자원의 대리변수로는 기술개발 인력, 소유구조, 자본집약도 등으로 구분하여 기업규모가 기술개발 및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며, 기술개발 인적자원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금융자립도와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등은 기술혁신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이병기(2004)	정부의 연구개발투 자와 매출액 및 시장집중도가 증가할 때,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것,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평균 이상인 기업에서 평균적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중요함
원종학외(2005)	정부의 조세지원을 진행한 연구로 2002~2003년의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 규모별로 R&D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

	를 추정한 결과, 매출액은 R&D 투자에 양의 효과를 가져오고, 조세지원도 R&D투자에 양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남.
송종국외(2009)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는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R&D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나며, 정부의 R&D 보조금이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함
위세안(2011), 이선영(2011)	정부의 지원 보다는 대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여 대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Dupont & Martin (2003), Okubo(2011)	낙후지역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지역 간 소득불평등 및 고용,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낙후 지역의 보조금 지급의 중요성을 강조.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이질적일 때 주변부지역에 재 입지하는 기업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주변부 지역의 후생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자 작성

2. 한국 중소기업 지원정책

한국의 창업희망자에 대한 한국 정부 지원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실업자구제라는 정책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한국도 소상공인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소상공인의 창업시 정부로부터 받는 자금, 교육, 컨설팅지원과 지원정책의 만족은 사업의 자생력 제고 및 경쟁력 향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김순태, 2013).

한국도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혁신적인 주체로서 중소기업 위상을 반영하여 전략적인 육성정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를 1998년에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권고제로 운영되던 본 제도는 2013년 8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의무제로 되었다. 제도의 근간은 연간 300억 원 R&D예산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R&D예산 중 일정비율 이상은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소기업 R&D지원규모는 2000년 4,358억 원에서 2013년 1조 7,282억 원으로 연평균 10%이상 증가세에 있으나, 지원비중은 10년간 큰 변동은 없는 상태이다. 이는 미국, 일본 등 해외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프로그램(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와는 달리 의무제로 전환하였음에도 각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적 성과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근혜정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민 행복시대 구현, 신시장·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추격형 R&D에서 미래선도형 R&D로의 패러다임 전환,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를 통한 창업촉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으로,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루고, 64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과학기술정책의 핵심목표이며, 5대 전략(High Five) 중 High 1은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다. 이는 이전보다 과감한 R&D투자로 2017년까지 총 정부투자액을 92.4조원까지 끌어올리고, 투자의 재검증, 예산절감, 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을 강화하여, 정부 투자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질적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성실실패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기업이 정부R&D지원금으로 보다 창의적 이고, 유동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High 2는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5대 분야 전략기술을 추진, 시장과 민간 역량을 고려하여 정부 역할을 정립하

고, 토털 솔루션 정책지원으로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사업구조, 수요자 중심의 평가와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High 3은 창의적인 기초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국가발전의 거점으로 출연을 육성하여 중장기적인 창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High 4는 중소· 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신 시장을 개척하고 융합기술과 제품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High 5는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주체별로 구분하여 지원체계를 세분화하고 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미래창조펀드와 크라우드 펀딩, 이스라엘식 보육 투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R&D 지원정책 몇 가지를 알아보면, 월드클래스 300(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사업, 중소중견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2008)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책 이라는 중소기업 관련 종합 정책안을 만들고 이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주체가 되어 지원을 실행한다.

<표2-8> 현 정부의 5대 분야 전략기술

5대 분야 내용	세부내용
IT융합 신산업 창출	차세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5G 등) 첨단 소재기술, 환경 친화 자동차 기술 등 10개
미래성장동력 확충	태양에너지기술, 우주발사체 기술 등 12개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수질대기 등 오염물질 처리기술 고효율 에너지 빌딩 기술 등 4개
건강 장수시대의 구현	맞춤형 신약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등 6개
걱정 없는 안전사회의 구축	사회적 재난 예측, 대응기술 (원자력 안전 및 환경사고 등) 식품 안정성의 평가, 향상 기술 등 6개

중소기업청 자료를 기초로 논자 작성

즉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제조나 IT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은퇴자 등 많은 국민이 진출하는 외식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3. 외식창업 관련 지원제도

한국의 외식 관련 지원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별로 되어 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향토음식자원화사업, 휠링푸드사업(타당성 검토중), 사찰음식지원, 음식특구등과 지방정부의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이나 지역성을 강조한 올림픽 맛집, 한과특화 사업, 젓 특화사업 등이 있다.

본문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저 한다. 향토음식자원화사업 목적은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의 상품화 및 체험공간 조성으로 우리 식문화 계승 및 확산 기여하고 농촌형 소규모 외식산업 및 향토음식 전문 인적자원 육성으로 향토음식 전승 및 농외소득 향상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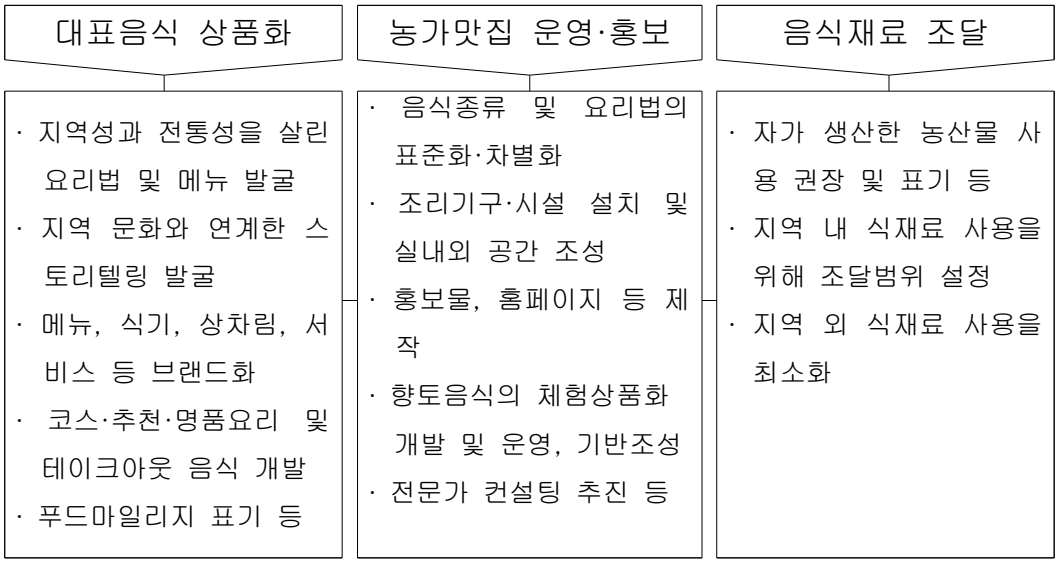
사업의 추진방향은 지역의 문화, 향토음식 등을 대표하는 농촌형 외식공간으로 차, 떡 등 같은 단품만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지역산 농산물, 가공품, 향토음식을 연계하여 대표 체험 프로그램 개발및 메뉴와 연계된 반찬류, 가공품 등 판매 품목의 다양화, 지역농산물 활용, 콘셉트, 매뉴개발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병행한다.

사업규모는 각 시군별로 1개소로 사업비는 과거 1억원에서 오천만원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등 2농가 이상 공동 참여(향토·전통음식 솜씨를 보유하고 상품화 효과가 기대되는 자, 향토음식에 대한 연구, 개발에 관심이 많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 역량과 경험이 있는 자, 한국전통음식학교 등 관련 교육, 향토음식연구회 등 활동, 관련 자격증 보유자, 지역 유휴 인력 및 자원 활용이 가능한 자 등)으로 사업장 입지예정지는 외식업 허가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가맛집의 기본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내 중심 지역은 배제되고 기존의 외식업(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도 배제된다.

사업의 운영방법은 지역농산물과 지역문화를 활용한 농가맛집 기자재 설치, 향토성, 지역성을 가미한 향토음식 및 식단의 지속적인 개발, 지역농산물 및 가공상품 전시 판매 공간 설치, 대표음식 메뉴개발 및 스토리텔링 발굴,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가 컨설팅, 식기, 용기, 테이블(밥상), 조리기구, 실내장식 등

농가맛집 꾸미기, 지역 농산물, 가공품, 활동(직거래판매장, 이벤트 등), 홍보 마케팅을 위한 활동(홈페이지 운영) 등으로 사용된다. 민사상책임, 사고, 식중독, 도난, 화재 등의 위험대비 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또한 사업예산은 리모델링, 기기구입 등 기반조성(사업비의 60% 이내), 전문가 컨설팅(사업비의 60% 이내) 사용으로 지도하고 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농업에 지역식문화를 연계하여 향토음식에 담긴 식문화를 상품화 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향토 식문화 계승으로 지역사회, 지역문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그림2 > 향토음식자원화 사업흐름도

제3절 직무경력과 창업교육

1. 직무경력

직무 경력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Baurch & Rosenstein(1992)는 경력을 한 개인이 일생을 걸쳐 일이나 직장생활을 통하여 경험하는 총체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심미영(2011)도 비슷한 정의로 경력이란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일과 관련된 총체적인 경험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Mirvis & hall(1994)은 경력을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역동적인 직무의 이동이라 하여 경력을 직무 이동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김석중(2010)은 경력을 인사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인적자원과 조직구성원의 희망목표를 통합하여 조직구성원의 경력경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는 인사관리 규정이라 하였다. 이 같은 정의는 Mulvaney et al.(2007)의 경력의 개념인 개인은 능력과 관심사 가치를 평가하여 경영자와 경력개발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실행계획 구상 및 실천이라는 관점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schein(1978)은 경력의 구성요소를 3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현 세상에서 다양한 직업환경의 실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신 재능에 대한 인식이고 둘째는 다양란 직무 배치의 실제적 경험에 의하여 자기분석과 타인으로부터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신의 동기와 욕구에 대한인식이고 셋째는 기업 혹은 조직들을 통해 얻는 다양한 기준과 가치에 대한 반응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태도,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 하였다.

예비창업자의 경력은 schein(1978)에 의하면 재능, 욕구, 동기 태도, 가치 등이 어울려져 직업과 관련된 이미지로서, 여러 경험과 타인의 피드백을 통하여 형성된다. 이 같은 예비창업자의 경력은 윤방섭(2004)에 의하면 직업과 관련된 이미지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유지 또는 이직에 영향을 준다,

윤방섭(2004)는 schein의 연구를 바탕으로 예비창업자의 경력 지향성 유형을 5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유형은 관리지향성유형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관리권한을 자신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유형이다. 즉 조직에서의 권한 영향력의 크기로 자신의 성공을 평가한다. 이들은 자신이 조직내에서 승진이나 권한 확대가 안되면 창업을 생각한다. 둘째유형은 기술지향성유형이다. 기술을 중시하여 기술역량을 통하여 경력을 만들어 가는 집단이다. 자신의 일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것을 중시하여 관리자로의 승진보다 전문영역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갖는 것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경영자 등에는 관심이 없고 전문영역에서 자신이 일을 하지 못하면 이직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집단이다.

셋째유형은 사업지향성이다. 창의적 재능을 발휘하는데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중시하는 자이다. Feldman & Bolion(2000)에 의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나 힘으로 자신을 구체화하려고 한다. 특히 오창환(2012)은 본 유형은 조직으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성공하고자 한다. 단 자율지향성보다 창업을 하여 사업을 하여야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는 것이 차이이다. 넷째유형은 안전지향성유형이다. 본 유형에 속한자는 직장이나 조직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자이다. Kolvereid(1996)에 의하면 직업의 안정성과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조직의 요구에 순응하는 집단이다. 이들이 직업을 이동할때에는 유사한 분야로 진출하며 업무 또한 유사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유형으로 자율 지향성이다. 이 유형은 조직 규정이나 상사의 지시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며 자기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크다. 그러므로 개인 사업을 하려는 욕구가 강한 집단이다.

그러므로 사업지향성, 자율지향성이 강할수록 창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안정지향성이 강할수록 창업 의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창업교육

예비창업자나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사업에 대한 교육은 기 사업자 교육과 욕구나 필요성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창업교육은 김주미(2008)는 미래의 창업자를 위한 창업 관련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Garavan, & O'Cinneide(1994), Weber(2011)등에 의하면 창업교육은 기업가 정신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창업 교육프로그램은 기업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 창업 교육의 세부 내용으로는 창업프로그램이나 기업 경영과 기술에 대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Fayolle, Gailly, & Lassas-Clerc, 2006).

양재장・남중헌(2015)에 의하면 대부분의 창업 교육의 목적은 수강생이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직업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재희・강진희(2013)은 창업교육 만족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외식업에 대한 교육은 황진선(2007)에 의하면 한국에서 외식업을 영위하고 있은 사업체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으나 외식창업 역사가 짧음으로 인하여 창업교육 또한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정규과정과 비정규 과정이라는 명칭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정규과정이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정규과목 또는 학위에 필요한 과목의 일부로 개설된 과정을 의미하며, 반면에 비정규과정이란 대학에서 가르치되 정규과목이 아닌 과목으로 가르치거나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개설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성혜, 2000). 현재 한국의 창업교육은 거의 단기창업프로그램으로, 창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창업자들의 요구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창업은 소규모로 영세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창업 아이템선정에서부터 제품개발, 시장조사, 재무, 마케팅, 그리고 관련 법규 등의 창업 전반에 대한 창업자의 이해와 능력이 필요하다(박영수・권용주, 2009). 창업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산업보다 생존율이 낮은 외식업의 생존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임현철·노유진, 2016)

특히 외식업분야에서 소상공인의사업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사업운영 및 사업여건에 있어 경험과 기술부족, 전문성, 판촉 및 마케팅 전략 결여, 자금조달의 어려움등과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실패 원인에도 불구하고 전시적인 행정으로 인한 시행착오의 반복은 창업을 준비한 개별사업체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손실이 된다.(허동욱·김준호, 2013. 임현철, 2015).외식업에서 소상

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성공적인 사업성과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임현철·노유진, 2016)

제 3장 조사연구의 설계

제 1절 조사설계

1. 조사목적

본 연구의 조사 목적은 연구 목적에 제시되었던 내용을 설문 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 목적인 조리 종사원의 외식업 창업의지, 창업여건 등에 대하여 조리종사원의 인지를 파악한다. 또한 조리 종사원이 필요로 하는 창업 교육분야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인 조사 대상자의 조리경력 차이에 따른 창업여건, 창업네트웤, 창업필요교육분야 등을 파악하여 조리 경력별 창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며 기술통계를 통하여 조리종사원의 창업에 대한 인지을 파악한다. 그리고 경령차이에 따른 창업여건, 창업네트웤, 창업필요교육분야등의 차이를 알아본다.

2. 과제의 설정

본 연구에서 조리 종사원의 창업에 대한 인지, 필요 교육분야를 파악하고 조리 종사원 경력 차이에 따른 창업전반의 차이를 알아보아 조리종사원 경력에 맞는 창업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제를 설정하였다.

1)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 인지에 대하여 차이를 분석한다.
   1-1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여건에 대하여 차이를 분석한다.
   1-2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정부의 창업 지원 인지 여부에 대하여 차이를 분석한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조리종사원의 경력차이에 따른 창업여건과 정부의 창업 지원 인지의 차이를 알아보아 조리종사원이 경력 차이에 따라 실제 창업을 하려는 시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인적네트워크에 대하여 차이를 분석한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조리종사원의 경력차이에 따른 창업조력자와 창업 롤모델의 차이를 알아보아 조리종사원이 경력 차이에 따른 창업 인적 토대 구성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3)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교육 분야에 대하여 차이를 분석한다.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조리종사원의 경력차이에 따른 창업 교육 분야를 알아봄으로써 조리종사원의 창업이나 대형 외식업체의 인적 구조조정시 교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조작적 정의

연구의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지 문항에 사용되는 각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용어의 개념이나 정의는 선행 연구에서 보았듯이 각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용어의 개념을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외식업

외식업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에게 끼니가 되는 음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체이다. 본 연구에서 한식, 일식, 양식, 분식 등 모든 음식 판매 하는 업체를 칭하다.

2. 외식업창업

창업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로 포괄적 개념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까지 창업에 포함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병욱(2006)의 개념인 개인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사업이나 업종을 선택하여 사업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제적· 생산적 활동 것을 기초로 한다. 그러므로 외식업창업이란 한식, 일식, 양식, 분식 등 모든 음식 판매 하는 업체을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하였다.

3. 창업교육

창업 즉 개인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사업이나 업종을 선택하여 사업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제적·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이에 대한 지식 습득하는 과정과 사업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 예비창업자를 위한 일련의 직무교육을 말한다.

4. 정부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금융측면 지원, 법률적측면 지원, 세제적측면 지원, 사회문화적측면 지원 등이 있다.(임주환. 1997)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은 금융적 지원 중 정부의 무상 지원금인 민간보조금으로 한정한다.

제 3절 조사설계

1. 표본 추출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본 연구 목적에 맞게 각종 외식업체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한정 한 이유 일반인과 조리종사원간에는 외식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같은 외식업 종사원일지라도 조리 직무과 서빙분야, 관리.경영분야 등의 직무는 직무차이로 인하여 필요 창업교육이 다를 것이므로 조리종사원으로 종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자로 한정허여 편의추출하여 선정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설문지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4분야로 하였다. 첫째 분야는 조리 외식업 창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 8개로 구성하고, 창업인적여건 분야에 대한 문항 6개이다. 창업교육 필요분야에 대한 문항은 28개이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측면 8개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문항은 명목척도와 등간 척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등간척도는 조사 대상자가 조리 종사원이므로 답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리커스트 5점 척도을 사용하였다. 리커스트 5점 척도의 점수는 1점-매우 그렇치 않다, 2점-그렇치 않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도록 구성하였다.

〈표3-1〉 설문지구성

구분	항목	힝목수	선행연구
창업 일반	창업욕구, 정부지원인식 등	8개	오창완(2012) 안태항(2010) 정영순(2008) 박봉삼(2007) 이충섭(2009) 김상순(2012) 정용희(2012)
창업 인적여건	창업조력자, 롤모델	6개	
교육(컨설팅) 창업교육 필요분야	교육 필요성 매출이익교육, 고객관리, 인사관리, 안전위생, 세무법규	28개	김홍범.허창(1997) 박영수,권용주(2009) 허동욱,김준호(2013) 임현철(2015) 김홍범,허창(1997) 강대훈(2006)
일반적특성	성별, 경력, 연령, 결혼, 거주지, 학력, 직장, 조리분야 등	8개	

3. 자료수집

설문지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교수 2명에게 사전 검토를 통하여 검증받았다. 설문지 배부는 2017년 1월 1일~1월 20일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총350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기입하였다. 설문지는 298부(86%)를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이 완전하지 않은 41부(13.8%)를 제외한 257부를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완전하지 않은 설문지를 통계처리에서 제외 시켰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특성에 대하여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전체적인 창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설문 답변결과의 전체적 성향을 보기하여 기술통계를 하였다. 또한 답변의 신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성 분석을 하였고 내용적으로 중복된 요인을 축약시키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각 분야별로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가설을 검증을 위하여 경력 집단별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한 요인간의 차이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으로 통계처리하였다.

제 4장 실증분석과 연구결과

제 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표본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는 155명(60.3%), 여자는 102명(39.7%)으로 나타났고 결혼여부는 기혼 163명(63.4%), 미혼 94명(36.3%)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는 서울 90명(35%), 경기 74명(28.8%), 충청남도 60명(23.3%), 전라북도 2명(0.8%), 경상남도 2명(0.8%), 경상북도 2명(0.8%), 강원. 제주 27명(10.5%)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지역에서 경상도와 정라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직장은 호텔 119명(46.3%), 한식당 29명(11.3%), 일식당 13명(5.1%), 양식당 34명(13.2%), 케터링사업 9명(3.5%), 제빵 11명(4.3%), 뷔페 9명(3.5%), 기타 33명(12.8%)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근무처가 일반 외식업체보다 큐모가 큰 호텔의 비중이 5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은 20대 64명(24.9%), 30대 52명(20.2%), 40대 84명(32.7%), 50대 57명(22.2%)으로 나타났고 경력은 1년이하 23명(8.9%), 2-3년 44명(17.1%), 4-5년 33명(12.8%), 6-7년 16명(6.2%), 8-9년 47명(18.3%), 10년이상 94명(36.3%)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48명(18.7%), 대졸 173명(67.3%), 대학원이상 36명(14%), 으로 대졸이상의 졸업자들이 총응답자 257명중 173명으로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표4-1>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55	60.3
	여	102	39.7
	합계	257	100.0
결혼	기혼	163	63.4
	미혼	94	36.6
	합계	257	100.0
거주지	서울	90	35
	경기도	74	28.8
	충청남도	60	23.3
	전라북도	2	.8
	경상남도	2	.8
	경상북도	2	.8
	강원제주	27	10.5
	합계	257	100.0
직장	호텔	119	46.3
	한식당	29	11.3
	일식당	13	5.1
	양식	34	13.2
	케터링사업	9	3.5
	제빵	11	4.3
	뷔페	9	3.5

	기타	33	12.8
	합계	257	100.0
연령	20대	64	24.9
	30대	52	20.2
	40대	84	32.7
	50대이상	57	22.2
	합계	257	100.0
경력	1년이하	23	8.9
	2-3년	44	17.1
	4-5년	33	12.8
	6-7년	16	6.2
	8-9년	47	18.3
	10년이상	94	36.6
	합계	257	100.0
학력	고졸	48	18.7
	대졸	173	67.3
	대학원이상	36	14.0
	합계	257	100.0
조리분야	제과제빵	35	13.6
	한식	66	25.7
	일식	23	8.9
	양식	133	51.8
	합계	257	100.0

2. 기술통계

본 연구 자료의 특성은 각 변수들의 분포상태를 간단하고 쉬운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왜도, 첨도, 평균값 등을 통계처리하여 조사대상자 답변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본 통계처리에서는 평균, 중위수, 최대.최소값등 여러 측정값이 있으나 본연구에서는 왜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만을 통계처리하였다. 왜도는 관측 값 들이 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는 자료의 분포가 좌우 대칭에서 벗어나 한쪽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며 왜도의 값이 0이면좌우 대칭이다. 첨도는 관찰 값 들이 산술평균 주위에 밀접 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료분포가 정규분포보다 얼마나 뾰족한 분포인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한 빈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에 대한 기술통계를 본 연구의 자료 중 명목척도를 제외한 자료의 이해를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등 분석한 결과를 <표 4-2>로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보통이상의 긍정적 값이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맛집사업인지(3.1206), 창업정부지원인지(3.2763) 등으로 정부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에 대하여서는 조리종사원들의 인지가 낮았다. 이에 반하여, 불만고객대처(4.2101), 기본매너(4.2374), 고객소통(4.2568), 온라인홍보(4.2607)등으로 교육요인에 대한 욕구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조리종사원은 직장에서 안전교육, 위생교육 등 직무와 관련된 각종교육과 직무 수행중에서 터득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서는 보통이상의 인지를 하고 있으나, 직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정부의 창업지원이나 외식업 지원에 대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에 대한 필요교육분야는 업무지식, 매장운영, 마케팅, 메뉴지식, 화재교육, 안전사고, 매출기획능력, 위생교육, 신메뉴개발 등으로 나타났다. 조리종사원은 마아케팅, 매장운영, 안전.위생교육, 메뉴개발 등 외식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교육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표준 오차	통계량	표준 오차
맛집사업인지	3.1206	1.15458	.177	.152	-1.024	.303
창업정부지원인지	3.2763	1.12045	.043	.152	-1.068	.303
창업준비중	3.4202	1.24156	-.285	.152	-1.146	.303
창업롤모델유무	3.4358	1.03680	-.060	.152	-1.018	.303
창업교육인지	3.4864	1.06837	-.177	.152	-.878	.303
창업위험감수	3.5409	1.16562	-.428	.152	-.837	.303
각종지원제도	3.7004	.85223	-.108	.152	-.470	.303
창업시친지도움	3.7043	1.08528	-.665	.152	-.221	.303
법규	3.7043	.85587	-.182	.152	-.238	.303
손비처리	3.7160	.83447	-.076	.152	-.443	.303
부가세	3.7237	.80861	-.036	.152	-.384	.303
사대보험	3.8016	.80253	-.265	.152	-.143	.303
창업조언자유무	3.8093	.94302	-.737	.152	.217	.303
창업성공자유무	3.8093	.97158	-.511	.152	-.454	.303
창업도움자유무	3.8132	.92499	-.575	.152	-.154	.303
창업교육습득의사	3.8249	1.02149	-.795	.152	.325	.303
이직관리	3.8444	.74418	-.199	.152	.019	.303
창업고민상담유무	3.8482	.88627	-.546	.152	-.155	.303
창업위험감소	3.8482	.88185	-.732	.152	.800	.303
창업욕구	3.8521	.99683	-.868	.152	.323	.303
인사관련제약	3.8599	.76790	-.173	.152	-.195	.303
퇴직후창업	3.8794	2.71948	12.58	.152	186.4	.303

창업교육중요	3.8911	.83607	-.884	.152	1.515	.303
직원불만관리	3.8949	.75043	-.161	.152	-.184	.303
창업교육지식습득	3.9027	.83985	-.731	.152	.806	.303
스토리텔링기술	3.9105	.81236	-.275	.152	-.341	.303
직원운영기술	3.9494	.67414	-.325	.152	.722	.303
판매기술	3.9961	.72617	-.364	.152	.278	.303
배상보험	3.9961	1.99706	12.01	.152	174.9	.303
업무지식	4.0195	.80744	-.709	.152	.746	.303
매장운영	4.0350	.75696	-.385	.152	-.017	.303
마케팅	4.0584	.72920	-.395	.152	.179	.303
메뉴지식	4.0700	.80705	-.533	.152	-.066	.303
화재교육	4.0778	.80147	-.600	.152	.148	.303
안전사고	4.0895	.84535	-.758	.152	.456	.303
매출기획능력	4.0973	.78702	-.561	.152	.081	.303
위생교육	4.1634	.83183	-.684	.152	-.089	.303
신메뉴개발	4.1946	.78629	-.699	.152	.174	.303
불만고객대처	4.2101	.71985	-.971	.152	2.232	.303
기본매너	4.2374	.73559	-1.00	.152	2.009	.303
고객소통	4.2568	.72092	-.871	.152	1.248	.303
온라인홍보	4.2607	.74878	-.805	.152	.612	.303

제 2 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

1. 신뢰성분석

신뢰도란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측정을 되풀이 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조사 대상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에 답하였는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으로 신뢰도 계수 alpha(a)는 검사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한 검사 내에서 변수들 간의 평균 상관 관계에 근거해 검사문항들의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뢰성 척도인 Cronbach's alpha의 값은 조사연구에서는 .7 이상, 실험연구에서는 .8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보며 .9 이상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우선 설문조사자의 답변의 신뢰성 여부와 표본의 규모가 적정 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뢰성 검증을 하였다..

창업 일반인식에 대한 문항들 신뢰성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표4-3>과 같이 답변에 대한 신뢰성검정 결과 Cronbach's alpha의 값은 .816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에 전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타당성 검증은 생략하기로 하였다.

<표4-3 > 창업일반인식신뢰도통계량

Cronbach의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수
.816	.884	8

창업인적네트워크에 대한 문항들 신뢰성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표4-4>과 같이 답변에 대한 신뢰성검정 결과 Cronbach's alpha의 값은 .915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통계에 전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타당성 검증은 생략하기로 하였다.

<표4-4 >창업인적네트워크 신뢰도통계량

Cronbach의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수
.915	.918	6

외식창업 교육.컨설팅에 대한 문항들 신뢰성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표4-5>과 같이 답변에 대한 신뢰성검정 결과 Cronbach's alpha의 값은 .911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통계에 전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타당성 검증은 생략하기로 하였다.

<표4-5 >외식창업 교육.컨설팅 신뢰도통계량

Cronbach의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수
.911	.912	3

외식창업 필요교육에 대한 문항들 신뢰성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표4-6> 과 같이 답변에 대한 신뢰성검정 결과 Cronbach's alpha의 값은 .939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통계에 전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타당성 검증은 생략하기로 하였다.

<표4-6 > 외식창업필요교육 신뢰도통계량

Cronbach의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수
.939	.953	25

2. 요인분석

요인분석이란 변수들 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여 몇 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여 전체변수들의 공통요인을 찾아내 각 변수가 받은 영향의 정도와 그 집단의 측성을 규정하는 연구방법이다. 창업일반인식에 대한 요

인분석 결과는 <표4-7>과 같이 KMO값은 .850로 보통 이상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은 두가지로 추출되었다. 창업욕구, 창업위험감수, 창업교육습득의사, 창업준비중, 퇴직후창업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창업준비라 칭하였다. 둘째요인은 창업정부지원인지, 맛집사업인지, 창업교육인지 등으로 추출되어 창업지원이라칭하였다.

<표4-7> 창업일반인식회전된성분행렬[a]

	성분	
	1	2
창업욕구	.841	
창업위험감수	.826	
창업교육습득의사	.755	
창업준비중	.720	
퇴직후창업	.506	
창업정부지원인지		.920
맛집사업인지		.880
창업교육인지		.802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있는베리멕스.
a. 3 반복계산에서요인회전이수렴되었습니다.
Kaiser-Meyer-Olkin 측도.850

창업인적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KMO값은 .884로 보통 이상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요인인 창업도움자유무, 창업고민상담유무, 창업조언자유무, 창업성공자유무, 창업시친지도움, 창업롤모델유무 등이 하나로 추출되어 인적네트웨크라 칭하기로 하였다.

<표4-8> 창업인적네트웨크성분행렬[a]

	성분
	1
창업도움자유무	.891
창업고민상담유무	.886
창업조언자유무	.863
창업성공자유무	.827
창업시친지도움	.798
창업롤모델유무	.783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a. 추출된1 성분
Kaiser-Meyer-Olkin 측도.884

창업교육에 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KMO값은 .884로 보통 이상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요인인 창업교육지식습득, 창업교육중요, 창업위험감소 등이 하나로 추출되어 창업교육라 칭하기로 하였다.

<표4-9 >창업교육성분행렬[a]

	성분
	1
창업교육지식습득	.940
창업교육중요	.918
창업위험감소	.909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a. 추출된1 성분
Kaiser-Meyer-Olkin 측도.746

창업필요교육에 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KMO값은 .920로 보통 이상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요인은 5가지로 추출되었다. 첫째요인은 각종지원제도, 법규, 손비처리, 부가세, 사대보험, 이직관리, 직원불만관리, 인사관련제약 등으로 추출되어 업장운영교육이라 칭하기로 하였다.

<표4-10 >창업필요교육회전된성분행렬[a]

	성분				
	1	2	3	4	5
각종지원제도	.865				
법규	.851				
손비처리	.842				
부가세	.825				
사대보험	.780				
이직관리	.628				
직원불만관리	.605				
인사관련제약	.577				
메뉴지식	.043	.824			
매출기획능력	.236	.821			
업무지식	.100	.799			
마케팅	.337	.754			
매장운영	.371	.730			
스토리텔링기술	.353	.702			
신메뉴개발	.105	.673			
판매기술	.179	.657			
불만고객대처	.221	.237	.765		
고객소통	.164	.282	.763		
기본매너	.201	.303	.712		
직원운영기술	.542	.261	.620		
온라인홍보	-.019	.169	.609		
안전사고	.284	.184	.325	.823	
위생교육	.323	.175	.287	.781	
화재교육	.339	.221	.307	.769	
배상보험	.217	.035	.200	.001	.747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있는베리멕스.

a. 7 반복계산에서요인회전이수렴되었습니다.
Kaiser-Meyer-Olkin 측도.920

둘째요인은 메뉴지식, 매출기획능력, 업무지식, 마케팅, 매장운영, 스토리텔링기술, 신메뉴개발, 판매기술으로 추출되어 업장경영교육이라 칭하기로 하였다. 셋째요인은 불만고객대처, 고객소통, 기본매너, 직원운영기술, 온라인홍보 등으로 추출되어 업장고객교육이라 칭하기로 하였다. 넷째요인은 안전사고, 위생교육, 화재교육 등으로 추출되어 안전교육이라 칭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요인은 배상보험 하나로 나타나 배상보험교육이라 칭하기로 하였다.

제 3 절 연구과제의 분석

1. 연구과제 1의 실증분석

연구과제1인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 인지에 대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세부연구과제 1-1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여건에 대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4-11>와 같이 F 5.297, 자유도 15, 자유도 2 251, 유의확률 .000로 나타나 경력에 따라 창업준비에는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1>경력에 따른 창업여건에 대한 평균차이

경력	평균차	표준편차	
1년이하	-.2149100	.88667732	제곱합 24.433
2-3년	-.5230540	.90967991	자유도 5
4-5년	.0468975	.74197265	평균제곱 4.887
6-7년	-.1058208	.85231541	F 5.297
8-9년	-.0794862	1.14486112	유의확률 .000
10년이상	.3387093	.98309218	

세부연구과제 1-2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정부의 창업지원 인지 여부에 대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4-12>와 같이 F 3.378, 자유도1 5, 자유도2 251, 유의확률 0.006로 조사되어 경력에 따라 창업준비에는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과제1인 경력에 따른 창업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4-12>경력에 따른 창업지원에 대한 평균차이

경력	평균차	표준편차	제곱합 16.142
1년이하	-.3857487	1.05569796	자유도 5
2-3년	-.3971177	.92004372	
4-5년	-.0824975	.97447455	평균제곱 3.228
6-7년	.0968768	1.09718549	F 3.378
8-9년	.1727499	.98190014	
10년이상	.2063674	.96244593	유의확률 .006

2. 연구과제 2의 실증분석

연구과제2인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인적네트워크에 대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4-13>와 같이 제곱합 24.433, 자유도 5, 평균제곱 4.887, F 5.297, 유의확률 0.000으로 경력에 따라 창업인적네트워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리종사원의 경력차이에 따른 창업조력자와 창업 롤모델 등 창업인적 토대 구성에 차이가 있다.

<표4-13> 경력에 따른 창업인적네트워크에 대한 평균차이

경력	평균차	표준편차	제곱합 24.433
1년이하	-.3857487	1.05569796	자유도 5
2-3년	-.3971177	.92004372	
4-5년	-.0824975	.97447455	평균제곱 4.887
6-7년	.0968768	1.09718549	F 5.297
8-9년	.1727499	.98190014	
10년이상	.2063674	.96244593	유의확률 0.000

3. 연구과제 3의 실증분석

연구과제 3인 경력에 따라 조리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교육 분야에 대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이 6가지로 나타나 각 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첫째요인인 교육의 필요성과 경력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4-14>와 같이 제곱합 7.437, 자유도 5, 평균제곱 1.487, F 1.502, 유의확률 0.19으로 경력에 따라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14> 경력에 따른 창업인적네트워크에 대한 평균차이

경력	평균차	표준편차	제곱합 7.437
1년이하	.2454926	.96222677	자유도 5
2-3년	-.0516546	.93949956	
4-5년	-.2367280	1.13918077	평균제곱 1.487
6-7년	-.1959113	1.35228470	F 1.502
8-9년	-.1547500	.95822835	
10년이상	.1579397	.92192020	유의확률 0.19

교육의 2번째요인인 업장운영교육과 경력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4-15>와 같이 제곱합 9.545, 자유도 5, 평균제곱 1.909, F 1.944, 유의확률 0.088로 학문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확율이 0.088로 신뢰수준 90%이상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4-15> 경력에 따른 업장운영교육에 대한 평균차이

경력	평균차	표준편차	제곱합 9.545 자유도 5 평균제곱 1.909 F 1.944 유의확률 0.088
1년이하	-.2577258	1.20328575	
2-3년	-.2206948	.93275422	
4-5년	-.0813431	1.07524651	
6-7년	.5568236	.90533499	
8-9년	.0359674	.94930839	
10년이상	.0821590	.96410672	

교육의 3번째요인인 업장경영교육과 경력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16>와 같이 제곱합 6.041, 자유도 5, 평균제곱 1.208, F 1.213, 유의확률 0.303으로 경력에 따라 업장경영교육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16>경력에 따른 업장경영교육에 대한 평균차이

경력	평균차	표준편차	제곱합 6.041 자유도 5 평균제곱 1.208 F 1.213 유의확률 0.303
1년이하	-.3417983	.98580082	
2-3년	-.1476654	1.07351335	
4-5년	-.0947471	.86374054	
6-7년	.0266311	.86468183	
8-9년	.1028066	1.04645881	
10년이상	.1300775	1.00301908	

교육의 4번째요인인 업장고객교육과 경력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17>와 같이 제곱합 5.414, 자유도 5, 평균제곱 1.083, F 1.085, 유의확률 .369으로 경력에 따라 업장고객교육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17>경력에 따른 업장고객교육에 대한 평균차이

경력	평균차	표준편차	제곱합 5.414
1년이하	-.0740865	1.00068772	자유도 5
2-3년	-.0956912	1.04907327	
4-5년	-.2278205	1.18447181	평균제곱 1.083
6-7년	.2770870	.82345013	F 1.085
8-9년	-.0755507	1.01511811	
10년이상	.1335103	.92028585	유의확률 .369

교육의 5번째요인인 안전교육과 경력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4-18>와 같이 제곱합 19.262, 자유도 5, 평균제곱 3.852, F 4.085, 유의확률 .001으로 신뢰수준 99%에서 경력에 따라 안전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력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다르므로 향후 창업교육시 이를 고려하여 경력별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교육의 효과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표4-18>경력에 따른 안전교육에 대한 평균차이

경력	평균차	표준편차	제곱합 19.262
1년이하	.5546652	1.09314403	자유도 5
2-3년	.3654717	.97850439	
4-5년	.0430829	.96438857	평균제곱 3.852
6-7년	-.0416779	1.05376371	F 4.085
8-9년	-.2213571	.85008423	
10년이상	-.2041400	.98164818	유의확률 .001

교육의 6번째요인인 배상보험과 경력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4-19>와 같이 제곱합 13.579, 자유도 5, 평균제곱 2.716, F 2.812, 유의확률 .017로 신뢰수준 95%에서 경력에 따라 배상보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경력에 따라 안전교육과 이에 따른 배상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다르므

로 향후 창업교육시 이부분에 대한 교육은 경력별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교육의 효과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표4-19>경력에 따른 배상보험에 대한 평균차이

경력	평균차	표준편차	제곱합 13.579
1년이하	-.0845448	.74501503	자유도 5
2-3년	.0108713	.98369629	
4-5년	-.0580954	.72548296	평균제곱 2.716
6-7년	.8721533	2.80972946	F 2.812
8-9년	-.0060125	.53413036	
10년이상	-.1094523	.65759217	유의확률 .017

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

한국은 임금의 연공서열제로 인하여 장년층이 조기 은퇴하고 있으며, 사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체계는 청장년층 또한 조기 퇴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정부에서는 퇴직 후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창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제도를 만들고 있다.

외식업분야도 여러 창업 지원제도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외식관련 창업 지원제도는 일반인, 평생 다른 직종에 있던 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외식업에 종사하던 특히 조리에 종사하던 자들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중앙정부 민간 보조사업 1760개, 연간 30조원의 정부 보조 사업에서, 전체 산업종사원 964만명 중 26만명이 종사하는 외식업 종사원의 창업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정부 외식업 관련 지원조건은 외식창업시 조리 교육이나 외부 조리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식초보자에게는 매우 필요한 조치이지만 조리 경력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조리 관련 종사자의 창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인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한 조리종사원과 현업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자의 정부의 정부보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첫째는 조리 종사원이 외식업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인지여부를 파악한다. 둘째는 조리 종사원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 및 교육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 경력에 따른 인지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계량적 방법으로 외식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자를 편의추출하여 선정하여 설문지 배부는 2017년 1월 1일~1월 20일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총350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98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이 완전하지 않은 41부를 제외한

257부를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조사대상자는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통이상의 값이 나타났다. 맛집사업인지(3.1206), 창업정부지원인지(3.2763) 등으로 정부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에 대하여서는 조리종사원들의 인지가 낮았으며, 불만고객대처(4.2101), 기본매너(4.2374), 고객소통(4.2568), 온라인홍보(4.2607) 등으로 교육 요인에 대한 욕구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는 연구과제1인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 인지에 대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세부연구과제 1-1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준비에는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연구과제 1-2인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정부의 창업지원 인지 여부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과제2인 외식업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 인적네트워크에 대하여 차이가 있다.

연구과제 3인 경력에 따라 조리 종사원은 경력에 따라 창업교육 분야에 대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이 6가지로 나타나 각 요인별로 분석하였다. 첫째요인인 교육의 필요성과 경력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의 2번째요인인 업장운영교육과 경력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유의확율이 0.088로 신뢰수준 90%이상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의 3번째요인인 업장경영교육과 교육의 4번째요인인 업장고객교육은 경력간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의 5번째요인인 안전교육과 경력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력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다르므로 향후 창업교육시 이를 고려하여 경력별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교육의 효과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6번째요인인 배상보험과 경력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력에 따라 안전교육과 이에 따른 배상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다르므로 향후 창업교육시 이부분에 대한 교육은 경력별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교육의 효과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외식업 종사자인 조리사의 창업 의사, 창업 여건, 창업 교육에 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데 첫 의의가 있다. 또한 조리사 경력에 따라 창업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으며 창업의 인적 관계도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명한 것이다. 그리고 창업교육 필요성과 필요교육 분야가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명한 것이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첫째 사항은 조리 종사원 창업 교육에서 안전 교육과 업무관련보험 업무에 대한 욕구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으로 외식창업 교육이 음식 개발, 서비스등에 맞추어져 있으나 조리사들의 필요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리경력에 따라서 창업에 대한 인식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경력에 따라 업장 운영과 업장경영에 대한 교육 내용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퇴출하는 외식업 시장에서 조리 전문가의 단독 창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조리종사원에 맞는 지원제도, 창업지원, 창업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조사대상자가 일반 조리사를 중심으로 하여 창업 욕구가 없는 자까지 조사하여 교육 필요성이나 필요 교육 분야가 실제 창업하려는 조리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조사대상자를 수도권으로 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음식 종류에 따라 창업이나 필요 교육이 다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고 각 종사원의 근무여건에 따라 창업의지나 이직의지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음식이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해외 진출이 시도되고 있으므로 외식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대훈(2006), 외식사업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재희 · 강진희(2013). 외식관련 대학의 창업지원 교육과정이 학교만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연구, 28(2), 201-224.

권기준(2010), 소규모 레스토랑의 성공창업 및 경영을 위한 물리적환경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AHP분석을 이용하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태기(2004), 인적자원개발과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韓國經濟發展學會, 經濟發展硏究. 제10권 제2호, p.321-342.

김상순(2012),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태(2013), 소상공인 특성과 정부지원 정책요인이 사업전략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재식(1997), 화이트 칼라 실직자를 위한 마케팅 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 韓國職業敎育學會, 職業敎育硏究.제16권 제2호, pp.223-238.

김예주(2010), 중소규모 외식업체 경영자특성 및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집(2014), 창업지원 정책과 고용률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최근 3대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洪範·許 蒼(1998), 顧客의 外食動機에 따른 레스토랑 選擇屬性의 差異 : 외국체인레스토랑을 中心으로 韓國觀光學會, 觀光學硏究.25, p.205-221.

나영선(2006), 외식사업 창업과 경영, 서울, 백산출판사.

박봉삼(2007), 소상공인 창업의 단계별 성공요인과 지원방안,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수 · 권용주(2009). 외식창업 성공을 위한 창업교육에 대한 수강생과 강사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한국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을 대상으로. 외식경영연구, 12(2): 7-28.

박종목(법명 지상)(2016)스포츠 포교 활동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빈봉식·박정기(2001), 부산지역 소상공인 창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연구, 東義大學校, 東義論集 :人文·社會科學. 34, p.529-559.

성태경(2003), 기업규모와 기술혁신활동의 연관성 :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 中小企業硏究. 제25권 제2호 통권51호, p.305-325.

송종국. 김혁준(2009),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기술혁신연구. 제17권 제1호, p.1-48.

신종철(2010), 創業家의 心理的 特性이 創業成果에 미치는 影響 : 창업가십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태항(2010), 소상공인의 배경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재장, 남중헌(2015), 창업동기와 창업교육 만족이 창업 준비행동, 자기효능감 그리고 외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남 지역 창업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30권 6호 pp.47-66.

양재장・이상건(2014), 레스토랑 고객의 환경 지식이 친환경 메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9(2), 265-285.

오창환(2012), 대기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지향성 유형화와 관련변인, 서울대하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경준(2004),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윤방석(2004),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 개,인 트그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권2호.

윤성욱.서근하(2003) 한국의 소상공인 창업문화에 관한 연구 : 창업자 개인적 특성과 마케팅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소비문화학회, 소비문화연구. 제6권 제1호 p.99-118.

원종학(2005), 기업연구개발활동 조세지원 방안, 재정포럼 제10권 제7호 통권 제109호, p.22-37.

위세안(2011),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주.이윤보.김종운(2011), 창업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韓國中小企業學會, 中小企業硏究, 제33권 제2호 통권83호, p.73-92.

이병기(2004),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이병옥(2006),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과 미래. 40호, p.18-21.

이선성(2007), 소상공 창업의 성공요인과 창업자 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선영.서상혁(2011), 정부지원 중소기업 기술협력사업의 성과판별 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4권 제3호 (2011년 9월), p.664-688.

이신모(2002)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와 여대생들의 창업환경인식 慶熙大學校부설 産業關係硏究所, 産硏論叢.제27집, p.145-166.

이윤재(2007), 창업보육기업의 기업가 특성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충섭(2009), 외식기업의 시장 환경특성이 내부마케팅 및 내부마케팅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외식경영학회, 외식경영연구.제12권 제2호, p.29-52.

임주환외(1997), 관광지개발론, 서울, 백산출판사.

임현철. 노유진(2016).외식업 창업 지원서비스가 창업역량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진우(2010), 외식업체 물리적 환경이 고객만족, 구전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영순(2008), 소액창업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33집, p.531-557.

정용희(2012),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과 경력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광연(2010), 외식서비스시설의 물리적 환경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정제(2004), 소자본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중소규모 레스토랑(음식점)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희진(2011).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인과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2), p237-259.

황진선(2007). □대학생의 창업교육요구도와 창업의지□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해외문헌

Brockhaus, R.H(1980), Risk 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3, p509-520.*

Fayolle, A., Gailly, B., & Lassas-Clerc, N. (2006). Effect and counter-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ocial context on student's intentions. *Estudios de Economia Aplicada, 24(2): 509-524.*

Garavan, T. N., & O'Cinneide, B. (199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Part 1.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8(8): 3-12.*

Macmillan I. C., Siegal, R. and Narasimha, p. n.(1985) Criteria used by venture capitalists to evaluate new venture proposals, *Journal of bussiness venturering p119-128*

Morris, M. H. & Pamela S. L.(1995).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7): 31-48.*

Schein E H(1978), Career dynamics: match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needs, Reading, mass: add: son-wesley.

Schumperter, J.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55, *Transaction publishers.*

Timmons, jeffry A(1994) New venture creation : enter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 magraw hill, 4th sdition.*

Vesper. K.H(1980), New venture strategie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 J.

Weber, R. (2011). Evalua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Munich. Springer.

기타자료

농림식품부 2016년 향토자원사업 공고
조선일보 2016.10.22
서울경제 2016.10.19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2조
중소기업청 기술로드맵, 2014년
중소기업청 기술혁신 지원제도, 2016년.
중소기업청 2011년 자료
중소기업청 2016년
창업지원법 2조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년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1993년

An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staurant Workers

- Focusing on Cooking Career Difference -

Lee, Young -Ki
Departument of Tourism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o-Sung)

ABSTRACT

In Korea, the elderly are retiring early due to the seniority of wages and the regular restructuring system of the private enterprise is also having early retirement. For this reason,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a variety of support systems for those who wish to start business after retirement in order to establish a stable found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of retired or planned retirement cook workers. In particular, it is a practical stud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bsi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grasps whether or not the cooking staff is aware of the government's support for establishing a restaurant business. Second, it identifies th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nd education needed by cooking workers. And finally, it is to identify the cognitive difference according to cooking care.

The survey respondents were more than average in overall statistics. According to recognition of famous restaurant (3.1206), and awareness of start-up government support (3.2763), the awareness of cook workers was low in the case of government subsidized projects and support projects; It

showed a strong demand for educational factors by responding to complaints (4.2101), basic manners (4.2374), customer communication (4.2568), and online promotion (4.2607).

The results of the hypotheses are as follows. Hypothesis 1: It was adopted that the restaurant workers will show the difference in their entrepreneurship depending on their career. Hypothesis 2: The hypothesis that the food service industry employees will have a difference in the entrepreneurial network is adopted and the detailed hypothesis is extracted as one factor andhypothesis 3 was adopted that there would be differences i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ccording to care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rstly identify the perception of cook workers' a start-up intention, a start-up condi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addition,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according to the career of cooks, and the fact that the personal relationship of entrepreneurship also varies according to career experience. And the need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he need for education are different according to career.

The first point that this study suggests is that the need for safety education and work - related insurance business is generally needed in the establishment of cookery workers. Generally, it is said that the education of entrepreneurial entrepreneurship is focused on food development and services, but the needs of cooks are different. Second, the awareness of entrepreneurship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oking experience, so appropriate education to this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make a difference in education contents about business operation and business management. Finally, it provides the basic data on the start-up of a cooking expert in a restaurant market where enormous people start up and exit.

Despite the above achievements,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it is considered that some subjects surveyed are those who do not have the entrepreneurial desire by focusing on general cooks. Second,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e as the nationwide by targeting population to the metropolitan area. Final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in future studies that start-up or necessary education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food.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조리 관련 종사자의 맛집 창업 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조리사의 창업 관련 교육 강화를 위한 학술적인 연구에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지의 내용은 학술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작성되고 컴퓨터로 통계처리 됨으로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특성이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귀하의 솔직한 생각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질문에 답하시다가 의문점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및 E-mail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도교수 : 경주대학교 외식경영학부 김보성교수

석사과정 : 이영기 <연락처> : 010-6324-5336

▣ 다음 질문들은 창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외식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욕구 있다.					
2	나는 창업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을 하고 싶다.					
3	나는 창업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					
4	나는 퇴직 후 창업을 할 예정이다.					
5	나는 외식 창업에 관한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다.					

6	나는 외식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					
7	나는 외식창업의 정부지원을 알고 있다.					
8	나는 향토(농가) 맛집 지원 사업을 알고 있다.					

▣ 다음 질문들은 창업네트워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나는 창업 관련 조언을 받을 사람이 있다.					
10	나는 창업 관련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					
11	나는 창업 관련 고민을 애기 할 사람이 있다.					
12	나는 창업 관련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	나는 주변에 창업에 성공 한 사람이 있다.					
14	나는 창업 관련 롤 모델이 있다.					

▣ 다음 질문들은 외식창업 교육(컨설팅)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는 창업 교육(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창업 교육(컨설팅)이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창업 교육(컨설팅)이 사업 실패를 줄인다고 생각한다.					

▶ 다음은 **조리사이신 귀하**가 생각하는 **창업교육 필요성**에 대하여 체크해 주십시요.

번호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매출이익	개인 판매 기술					
19		업무 지식					
20		메뉴에 대한 지식					
21		매출관련 기획능력					
22		신메뉴 개발					
23		마케팅 수립					
24		매장 운영					
25		스토리텔링 기술 습득					

다음은 **조리사이신 귀하**가 생각하는 **창업교육 필요성**에 대하여 체크해 주십시요.

번호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고객관리	기본 매너 교육					
27		고객과의 케뮤니케이션 스킬					
28		불만 고객 대처법					
29		온라인홍보(홈페이지,블러그,sns 등)					

30	인사관리	직원 운영 기술					
31		인사관련 계약					
32		직원 불만 관리					
33		직원 이직 관리					
34	안전위생	화재 예방 교육					
35		안전사고 처리 교육					
36		위생교육					
37		배상보험					
38	세무.법규	부가세신고 교육					
39		손비 처리 교육					
40		4대보험 가입 교육					
41		각종 지원제도 교육					
42		관련 법규 교육					

43. 이외에 귀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교육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요

( )

▶ 다음 질문들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 앞에 ☑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 ☐ ② 여

2. 결혼

☐ ① 기혼 ☐ ② 미혼

3. 거주 지역은 어디인가요?

☐ ① 서울 ☐ ② 경기도

☐ ③ 충청남도 ☐ ④ 충남북도

☐ ⑤ 전라남도 ☐ ⑥ 전라북도

☐ ⑦ 경상남도 ☐ ⑧ 경상북도

☐ ⑨ 강원제주

4. 직장은 어디입니까?

☐ ① 호텔 ☐ ② 한식당 ☐ ③ 일식당 ☐ ④ 양식

☐ ⑤ 카테링사업 ☐ ⑥ 제방 ☐ ⑦ 뷔페 ☐ ⑧ 기타

5. 연령은?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이상

6. 경력은?

☐ ① 1년이하 ☐ ② 2-3년 ☐ ③ 4-5년 ☐ ④ 6-7년

☐ ⑤ 8-9년 ☐ ⑥ 10년이상

7. 학력은?

☐ ① 중졸이하 ☐ ② 고졸

☐ ③ 대졸(전문대포함) ☐ ④ 대학원이상

8. 조리분야는?

☐ ① 제방 ☐ ② 한식당 ☐ ③ 일식당 ☐ ④ 양식

기타( )